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농촌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집중 수거했다.

군산시, 하반기 영농폐자재 집중수거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임순옥)는 농촌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집중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한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다.

수거 폐기물은 전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642명은 읍면별로 공동 수거팀을 구성해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 시설하우스나 축산농가의 영농폐자재나 들녘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을 수거했다.

특히 올해 지난 5월 6일(상반기)에 39톤을 수거했으며 영농폐자재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농약 빈병과 봉투 등 영농폐자재 분리수거를 생활화 해, 타 농업인단체까지 농촌환경살리기 의식을 확산시

키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생활개선회는 경로식당 급식봉사 활동을 해년마다 실시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 일부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임순옥 회장은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산시 농업인들과 12개 읍면동 생활개선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올해로 15년째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실시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표창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박상만 기자

군산시, 영농폐자재 하반기 집중수거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여성농업인, 영농폐기물 환경지킴이 앞장

군산시가 여성농업인과 하반기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를 실시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농촌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했다.

이번 일제 수거기간 수거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전량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임순옥 회장은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산시 관내 농업인들과 12개 읍면동 생활개선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용 폐자재는 농촌마을과 농경지에 방치돼 미관손상은 물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농지와 하천 등 주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올해로 15년째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실시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군산=조세형 기자

全羅日報

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농기센터-생활개선연합회 농촌 들녘 방치 폐기물 합동 수거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임순옥)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농촌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했다.

이번 일제 수거기간 수거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전량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642명은 읍면별로 공동 수거팀을 구성해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 시설하우스나 축산농가의 영농폐자재나 들녘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을 수거 보관하다가 수거기간에 농업기술센터 임시 집하장으로 모아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난 5월 6일에 39톤을 이미 수거했으며, 해마다 그 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자재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농약 빈병과 봉투 등 영농폐자재 분리수거를 생활화해 타 농업인 단체까지 농촌환경살리기 의식을 확산 시키고 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전북도민일보

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 공모전

군산시가 2020년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소중하다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혼 장려 및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전 주제는 다둥이 가족,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부부의 모습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나 가사 등을 통해 행복한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담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chatonto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새만금일보

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농촌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했다.

군산시, 영농폐자재 집중수거... “클린농촌 만들어요”

12개 읍면동 생활개선회원 참여
자원화 수익금 일부 기부금 전달

군산시가 여성농업인과 하반기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를 실시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농촌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수거기간 수거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전량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642명은 읍면별로 공동

수거팀을 구성해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 시설하우스나 축산농가의 영농폐자재나 들녘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을 수거 보관하다가 수거기간에 농업기술센터 임시 집하장으로 모아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난 5월 6일에 39톤을 이미 수거했으며 해마다 그 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자재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농약 빈병과 봉투 등 영농폐자재 분리수거를 생활화 해 타 농업인단체까지 농촌환경살리기 의식을 확산시키며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생활개선회는 경로식당 급식봉사 활동을 해마다 실시,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 일부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임순옥 회장은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군산시 관내 농업인들과 12개 읍면동 생활개선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올해로 15년째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실시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한국환경공단이 사장 표창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순정일 기자

전북타임스

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009면 지역

군산시, 여성농업인과 하반기 영농폐자재 집중수거 나서

군산시가 여성농업인과 하반기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를 실시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임순옥)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농촌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수거기간 수거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전량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642명은 읍면별로 공동 수거팀

을 구성해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 시설하우스나 축산농가의 영농폐자재나 들녘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을 수거 보관하다가 수거기간에 농업기술센터 임시 집하장으로 모아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난 5월 6일에 39톤을 이미 수거했으며 해마다 그 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자재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농약 빈병과 봉투 등 영농폐자재 분리수거를 생활화해 타 농업인단체까지 농촌환경살리기 의식을 확산 시키며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생활개선회는 경로식당 급식봉사 활동을 해마다 실시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 일부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임순옥 회장은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용 폐자재는 농촌마을과 농경지에 방치되어 미관손상은 물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농지와 하천 등 주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